

우리의 소중한 권리! 5월 9일 대선투표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5월 9일 국민들은 향후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축 할 지도자를 선출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정국이 사실상 이 날 마무리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1%를 기록하였고, 중앙선거위는 8일 최종투표율이 80%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때 80.7%를 기록한 후 80%대 대선투표율은 처음이다. 또한, 전체 유권자 약 4천 247만 명 중 1천107만여 명은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서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대선투표는 전국 1만3천964개 투표소에서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

등록증이나 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이번 대선 레이스를 펼친 대선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 지지를 호소했다.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우들에게도 이번 투표는 큰 의미를 가진다. 16학번을 포함한 많은 학번의 학우들에게 본 대선은 첫 선거일 뿐 만 아니라 현 시국을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다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학우들은 sns에 간단한 후기와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이번 투표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우가 sns에 등재한 투표 인증샷과 자신의 소감

김동석 편집장

r_esun_z@naver.com

17학번에 과외선생님이 등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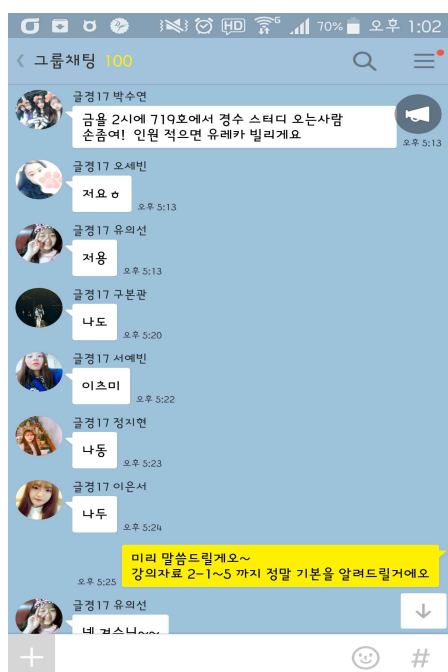
17학번 신입생들에게도 시험기간이 다가왔다. 학우들은 유독 경영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렵게 받아들였는데, 원어로 준비된 수업자료들과 교재들은 글로벌경영학트랙의 학우들에게도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수학에 대해 부담감을 지닌 학우들에게 영어라는 부담감까지 가중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17학번 신입생들은 수업을 더 가까이에 와서 쉽고 핵심만 강조 해 주는 조력자를 원하기 시작했다. 17학번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계속해서 과외 해줄 동기를 찾는 다는 말이 나오자 17학번의 박성진 학우가 자진해서 수업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였고, 반응은 생각보다 폭발적이었다.

2017년 4월 21일 가천관 719호에서 박성진 학우의 경영수학 수업이 진행되었다. 대략 15명 정도의 학우가 참여하였고, 한시간 반 가량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에 참여했던 학우들도 이용주 교수의 경영수학 강의만큼이나 사뭇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자진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동기들의 시험공부를 도와준 박성진 학우의 계기와 느낀 점이 궁금해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Q. 자발적으로 동기들의 시험공부를 도와주셨는데 혹시 계기가 있었나요?

A. 저는 21살입니다. 1년 재수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재수생이라 그런지 시험 기간에 가까워지면서 동기들이 수학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수업 때도 이용주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동기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동기들이 많아서 한 번에 핵심 내용만을 뽑아서 알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동기들에게 수업을 해주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생각보다 많은 동기들이 참여해주어서 수업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밤을 샌 상태로 진행되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박성진군의 과외현장

것 같고 수업 준비를 많이 못하고 시작해서 스스로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저의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 말해줘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글로벌경영학 트랙의 학우들은 ‘나만 시험 잘 보면 돼’ 보다는 ‘동기들과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서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다. 서로의 도움으로 인해 win-win 할 수 있는 글로벌경영학트랙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수빈 기자
dltnqls442@naver.com

Bottom up!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매년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트랙에서는 Bottom-up 사업이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우들이라면 모두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Bottom-up 사업은 ‘뽕 먹고 알 먹고’, ‘3D 디자인 프린트’, ‘UCC 경진대회’, ‘모의투자대회’, ‘마케팅 리그’, ‘글경 학술제’로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뽕 먹고 알 먹고 프로젝트는 이용주 교수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기개발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활동내역을 검토하고 시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뜨거운 인기로 인해 40명으로 제한 되어있던 인원이 금세 마감되었다. 장학금은 총 8명에게 500만원이 순위별로 차등 지급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제품 사업기획을 디자인 씽킹하라!’ 3D 디자인 프린트 프로젝트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이 있는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시제품을 제작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는 현대 사회와 적합한 사업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 제출하는 것

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성민 교수님이 진행하며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5팀에게 순위대로 차등 지급된다.

UCC 경진대회는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김희진 교수와 송하연 교수의 진행 하에 있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글로벌경영학트랙(이하 글경)의 인지도를 높이고, 글경이 진학 고려 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홍보대상은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우, 수험생으로 삼고 있다.

모의투자 대회는 실제 키움증권 홈페이지 내의 대학그룹 모의투자에서 사이버 상으로 진행된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좋은 성과를 낸 학우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한다. 주식이라는 어려운 분야에 보다 접근성을 높여 한 층 더 학우들의 경제적 안목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마케팅 리그는 각 팀이 2017년 1학기 실시되는 광고 및 마케팅 관련 공모전을 선택하고, 해당 공모전 주제에 대한 실제 출품 기획서를 작성하는 대회이다.

글로벌 경영 학술제는 올해 제 1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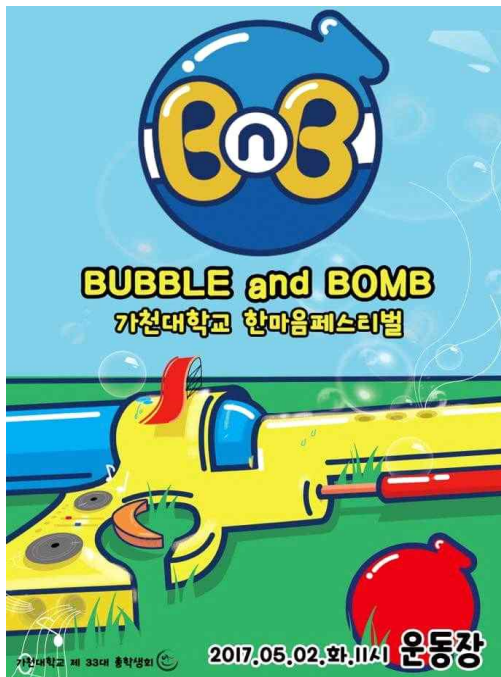
맞이한다.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총 5개의 트랙에 15명의 발표자가 있는데 발표는 30분이며 10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발표자 모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출된 운영위원 역시 장학금이 부여된다.

학우들은 이 Bottom-up 사업을 통해서 지적 능력, 소통 능력, 사고 확장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 심지어 대회 당 500만원 정도의 많은 양의 장학금도 걸려있어 많은 학우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가능하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과 교수들과 재학생들은 17학번들에게 꼭 참여하라며 적극 추천했다.

최백연 기자

우리모두 한마음 페스티벌

중간고사로 지친 학우들을 위한 페스티벌



▲ 한마음페스티벌 포스터

매년 중간고사 이후에 한 번씩 열리는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페스티벌이 있다. 한마음 페스티벌은 중간고사 기간에 힘들게 노력했던 대학생들을 위한 총학생회 주최인 워터 페스티벌이다. 워터 슬라이드와 물총놀이, 각종 게임들 그리고 초청 가수 공연까지 대규모 행사다. 이번년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 2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합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한마음 페스티벌은 1부, 이길여 총장의 덕담과 가천스타일 발대식, 2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에서는 가천 팀과 만세 팀으로 나뉘어 데시벨 게임, 버블슈트 게임, 공굴리기 게임, 파도타기 게임, 박 터트리기 총 4가지 게임이 진행되었다. 데시벨 게임과 파도타기 게임은 페스티벌 참가자 모두 참여하는 게임이고, 버블슈트 게임과 공굴리기 게임은 각과에 한두 명씩 참여하는 게임이다. 버블슈트 게임에는 구본관 학우가 참가했고, 공굴리기 게임은 문지현, 최백연, 김기현, 김은혁, 이예림 학우가 참가하였다. 박 터트리기 게임은 가천 팀과 만세 팀에서 선착순으로 20명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들의 총 점수를 합산하여 가천 팀이 이겼고 1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 되었다.

2부 행사는 학우들이 제일 기대하던 행사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자유롭게 풀장에서 놀고, 물총 싸움도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유학생들과도 어울려 축제를 즐기는 학우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마지막 순서로 초청 가수의 무대가 펼쳐졌다. JM소속사의 천재노창(본명 노창중)과 씨잼(본명 류성민)이 깜짝 등장했고, 뜨거운 열기로 관객들을 흥분시켰다.

김기현 기자
rlgus2738@naver.com